

나에게 불려오는 이곳 우리나라 美術學徒들에게는 으레 시간가는줄몰르게 역설하는事實이었다. 우리가 이곳 구라파에서 어떻게 우리의 그림을 가지고 미술계에 登場될것이나에 대해서다.

「빠리」郊外「세브레」에서

李應魯

<「세브레」自宅에다 東洋美術學校를 열고 東洋美術—붓글씨·板畫· 조각등을 가르치고있는 李應魯씨>



빠리

것기에 적은 나의經驗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온 作家들은 이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아니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때도는 이미그간의 노력은다포기하며 無視하는것이다.

그러면 이곳에서다시배운다는것은 이곳美術界에 안되는것이며, 이곳의 美術人의 토대는 벌써생각한것보다는 오랜歷史와 자기네들을 쌓아올리고있는 人들이기때문에 상대가 되지않는것이다. 이곳에서 배운다는사람은 이곳 人들의 생각하고있는바

畫壇과 우리

물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할줄알아야 하는것이다. 나란技法이나 畫面에서 배우게되면 결국모방밖에는안되며 그속에서 재주물피운다는사람은여러사람들 그림속에서 요것조것따서 畫面을채우는일로그치고 그러한方法으로존재를 밝히지못하고만다. 결국 한국에 돌아

연장된 時間이고 오늘날의情熱을 다 기울이고 製作한作品들을 가지고 올만한 준비가 있어야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라도 더욱더자기것으로 表現하여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畫家들은 우리의固有한것 이 무엇인가, 우리의民族이 어떠한文化·藝術의 歷史를가지고 어떻게發展을 해왔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繪畫과 어떤 대조를가지고있는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민족미술을 오늘날의것으로 창작하느냐, 생각해보아야한다. 물론 재료는墨·畫具·彩色畫具·油畫具·建築·彫刻·工藝 더나아

뒤고키울民族固有美

무작정渡佛보다 理解와批判부터

남의것 따르기보다 내것을 찾는게先務

가 어느 다른 部面이고간에 갈울것으로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固有한것이있다. 소박하고 기백이있고 속임없는 맑고세련된작품들이있다. 운치스럽고 優雅하고 脫俗한이런것들이 우리나라古墳江西南壁畫이전 이후로李朝에이르기까지, 또 지금 우리들생활주변에남아있는民俗藝術에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그속에서 찾아볼수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생활이있고 우리들의禮儀道德이있고 風習이있다. 그속에서도 우리들은 해야할것 생각하는것 고정할것이있고 생겨나는것 만들어지는것들이있다. 그러나 지금의 現象은 모든 새로운것은 먼나라 先進國에서만 존재하고 그것을워따

라가기에 앞선자만이 승리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後進國으로 만들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없는것처럼 그속을돌아다보려고 무엇을찾아보려는 마음들이보이지않는다. 왜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나는 다시한번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것이다.

사실 國際的이란 자기의 나라 것을 들고나가기 마련이 아닌가. 그것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나라것으로 다톤나라보다 앞선 未來에 대한 창작이어야한다. 이것이 또한 다른 部面과 다를 것이 없

을 것이다. 美術·科學·政治 오늘날의 國際的이라는것은 그러하다. 남의 뒤를 따르면서 어느부분에 에속되어 있으면서, 國際的이라고 말하는것은 國際舞臺에 나온 아무런 의미가없다. 남의 뒤에 멀어져가면서 벌써 남이하고난 그뒤를 따르면서 아무런 큰소리를 친다고 누가인정할것이나. 오늘날의 구라파畫界가 그러하다. 많은 畫家들끼리 제각기를고나온 그들속에 역시 우리도 우리의것을가지고 나와야만이 서로 주고받

는 오늘날의 現代가 존재한다. 이곳에와있는 우리나라 美術學徒들은 가끔나에게 이러한 말을준다. 다시한번 한국에 다녀오고 싶으며, 그간 소홀히했던 모든것에 후회가된다고한다. 어머니 절을 멀어져 보고야 어머니의 愛情을 더욱 느끼듯이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에 쌓이고 쌓인 民族的藝術文化는 넘쳐흐르는 우리들 혈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